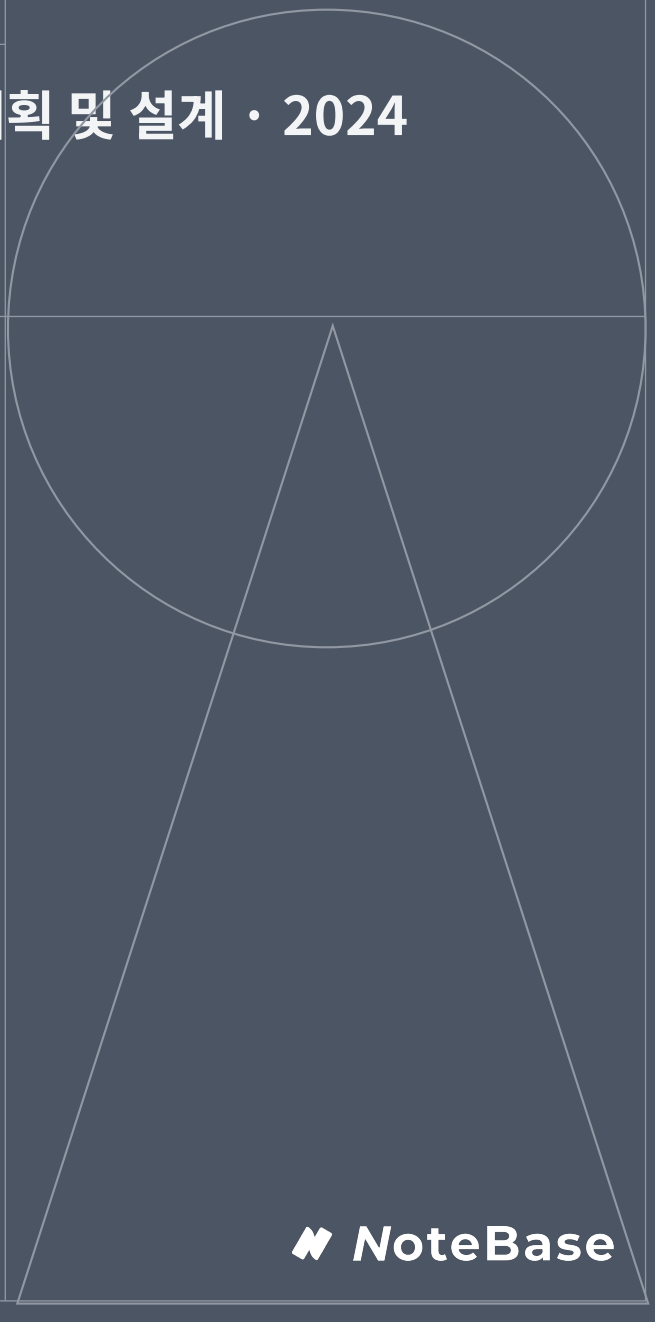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4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4

문 1.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형조직의 원리 중 '근접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각요소들이 자연스럽고, 균형 있는 방향으로 그룹을 형성하는 원리이다.

② 가까이 있는 요소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느껴지는 원리이다.

③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지닌 요소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느껴지는 원리이다.

④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소들이 동일한 그룹으로 보이는 원리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심리학의 도형조직 원리 가운데 근접성, 유사성, 좋은 연속, 공통운명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근접성은 서로 가까이 놓인 요소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지각하는 원리이다. 유사성은 색, 크기, 형태처럼 성질이 비슷한 요소들을 같은 집단으로 보는 원리이다. 좋은 연속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향이나 선을 따라 하나의 흐름으로 지각되는 원리이다. 공통운명은 같은 방향이나 속도로 움직이는 요소들을 한 집단으로 지각하는 원리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자연스럽고, 균형 있는 방향으로 그룹을 형성"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가까운 거리 때문이 아니라 선이나 흐름의 연속성에 따라 묶이는 좋은 연속의 원리 설명이다. 근접성으로 고치려면 "서로 가까이 있는 요소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느껴진다"라고 해야 한다.
2번 O: 근접성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요소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같은 집단으로 묶여 지각된다.
3번 X: 틀린 부분은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그룹화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근접성이 아니라 유사성의 원리 설명이다. 근접성으로 고치려면 유사한 특성이 아니라 요소 간 거리의 가까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소"를 같은 그룹으로 본다는 표현이다. 이는 근접성이 아니라 공통운명의 원리 설명이다. 근접성으로 고치려면 움직임의 방향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가까이 배치된 요소가 같은 그룹으로 보인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근접성은 거리, 유사성은 성질, 좋은 연속은 흐름, 공통운명은 움직임이 기준인데, 선지들이 이 기준을 서로 바꿔 놓아 개념 이름만 외운 경우 쉽게 혼동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군집의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잡으면 된다. 가까워서 묶이면 근접성, 비슷해서 묶이면 유사성, 이어져 보여서 묶이면 좋은 연속, 함께 움직여서 묶이면 공통운명이다.

암기 포인트

근접성은 거리, 유사성은 성질, 좋은 연속은 흐름, 공통운명은 움직임이다.

NoteBase

문 2. 도시 및 조경계획 시 교통 및 동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행로의 폭 및 경사도 제한은 통행속도, 도로의 종류 및 통행량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보행동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통행량이 많은 주간선도로는 가능한 한 막힘이 없도록 순환되는 체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심지와 같이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위계형의 패턴이 효율적이나 주거지,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이 모임과 분산의 체계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전체의 이용행위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격자형이 바람직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통 및 동선 패턴의 성격을 구분하여 대상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격자형은 교차와 연결이 많아 접근성과 경로 선택성이 높은 패턴이므로 도심지 같은 고밀도 시가지에 유리하다. 위계형은 국지도로-집산도로-간선도로처럼 단계적으로 흐름을 모아 통과교통을 통제하는 패턴이므로 주거지나 공원처럼 안전과 이용 질서가 중요한 곳에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1번 O: 통행로의 폭과 경사도는 이용 속도, 도로 기능, 예상 통행량,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주동선인지 보조동선인지에 따라서도 요구 기준이 달라진다.
2번 O: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만나는 곳에서는 계획 원칙상 보행 안전을 우선한다. 교차부 처리도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충돌 저감이 먼저 고려된다.
3번 O: 통행량이 많은 주간선도로는 가능한 한 병목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연속적으로 흐르도록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 순환 체계는 교통을 분산시켜 막힘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4번 X: 틀린 부분은 '도심지는 위계형, 주거지·공원 등은 격자형'이라는 대응이다. 실제로는 도심지처럼 고밀도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연결성과 접근성이 높은 격자형이 효율적이고, 주거지·공원·어린이놀이터처럼 이용 질서와 통과교통 억제가 중요한 곳에는 위계형이 바람직하다.

오답 포인트

위계형이라는 말만 보고 도심지의 복잡한 교통을 더 잘 처리할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패턴의 작동 방식이며, 격자형은 연결성 중심이고 위계형은 통제 중심이라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상지에서 먼저 요구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본다. 접근성과 분산 이동이 핵심이면 격자형으로, 보행 안전 확보와 통과교통 통제가 핵심이면 위계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도심 고밀도는 격자형, 주거지 안전 관리는 위계형이다.

NoteBase

문 3. 토양분류 체계 중 같은 토양통 및 토성 내에서 같은 침식도 및 경사를 갖는 토양을 의미하며, 정밀토양도의 작도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토양상(土壤相)

② 토양목(土壤目)

③ 토양군(土壤群)

④ 토양구(土壤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밀토양도의 작도단위 중 토양구와 토양상의 구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양상은 같은 토양통과 같은 토성 안에서 경사도와 침식도 같은 현장 조건에 따라 다시 나눈 단위이다. 토양구는 같은 토양통 안에서 표토의 토성을 기준으로 나눈 단위이다. 토양목은 가장 넓은 상위 분류단위이고, 토양군은 개략토양조사에 쓰이는 고차분류 단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같은 토양통 및 같은 토성 안에서 같은 침식도와 경사를 가지는 토양은 토양상이다. 정밀토양도에서 토지 이용과 관리 차이를 드러내는 세분 단위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토양목'이다. 토양목은 전 세계 토양을 크게 나누는 최상위 분류단위이다. 올바르게는 같은 토양통과 토성 안에서 경사와 침식도를 기준으로 세분한 단위는 토양상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토양군'이다. 토양군은 토양통·토양구·토양상처럼 세부 작도 기준을 묻는 단위가 아니라 개략토양조사에서 사용하는 상위 분류단위이다. 올바르게는 정밀토양도에서 같은 토양통과 토성, 같은 경사와 침식도를 가지는 단위는 토양상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토양구'이다. 토양구는 같은 토양통 안에서 표토의 토성이 같은 토양을 가리키며, 경사도와 침식도까지 같다는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토성 기준 세분은 토양구이고, 경사와 침식도까지 더해 세분한 것은 토양상이다.

오답 포인트

토양구와 토양상이 모두 정밀토양도에서 쓰이는 용어라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같은 토양통 및 토성'까지는 토양구의 기준이고, 여기에 '같은 침식도 및 경사'가 더 붙으면 토양상이라는 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토의 토성만 묻는지, 경사와 침식도까지 함께 묻는지를 먼저 본다. 토성 기준이면 토양구이고, 같은 토양통과 토성 안에서 경사와 침식도를 더 붙여 세분하면 토양상이다.

암기 포인트

토양구는 토성 기준이고, 토양상은 경사·침식도 기준이다.

NoteBase

문 4. 시민참여 이론 중 안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 사다리 이론에서는 공공정책 및 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권한 정도에 따라 참여 방식을 분류하였는데, 이 중에서 명목적인 또는 형식적인 단계(degree of tokenism)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동협력(partnership)

② 상담(consultation)

③ 계도(manipulation)

④ 교정(therapy)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안스타인의 시민참여 사다리에서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시민권력의 단계를 구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안스타인의 시민참여 사다리는 8단계를 3묶음으로 본다. 조작과 교정은 비참여 단계이고, 고지·상담·회유는 형식적 참여 단계이며, 공동협력·권한위임·시민통제는 시민권력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공동협력은 partnership으로서 시민과 행정이 협상하고 권한을 나누는 시민권력 단계이다. 틀린 표현은 형식적 참여 단계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시민권력 단계이다.
② O. 상담은 consultation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행정에 있어 형식적 참여, 즉 degree of tokenism에 해당한다.
③ X. 계도는 manipulation으로서 시민참여를 가장하지만 실제 권한은 주지 않는 비참여 단계이다. 틀린 표현은 형식적 참여 단계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비참여 단계이다.
④ X. 교정은 therapy로서 참여라기보다 시민을 교육·순응시키려는 비참여 단계이다. 틀린 표현은 형식적 참여 단계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비참여 단계이다.

오답 포인트

공동협력, 상담, 계도, 교정을 모두 참여의 세부 단계로만 외우면 헷갈리기 쉽다. 특히 상담은 의견 수렴이 있으므로 실질적 권한 부여처럼 보이지만, 결정권 이전이 없어서 형식적 참여에 그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스타인 문제는 먼저 권한이 시민에게 실제로 넘어갔는지를 본다. 권한 이전이 없고 의견만 듣는 수준이면 형식적 참여이고, 시민을 설득하거나 통제하는 수준이면 비참여이며, 협상권이나 결정권을 나누면 시민권력 단계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조작·교정은 비참여, 상담은 형식적 참여, 공동협력은 시민권력으로 묶인다.

NoteBase

문 5. 생태계기능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지도 중 하나로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도의 명칭은?

<보기>
•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등)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생물종다양성, 식생의 자연성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다.
•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① 생태자연도
② 도시생태현황지도
③ 국토환경성평가지도
④ 토지적성평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태자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토지적성평가의 목적과 작성 기준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법제적 보호요소와 환경·생태적 요소를 함께 중첩하여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5등급으로 종합평가한 지도이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을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한 지도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 내부의 비오톱 유형과 생태현황을 조사·평가한 지도이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환경·물리·공간적 특성을 평가하여 개발과 보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생태자연도는 전국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이므로, 제시문처럼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함께 중첩한 5등급 종합평가 지도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다. 올바르게는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을 평가한 지도'이다.
2번 X: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를 대상으로 비오톱 유형, 서식환경, 생태네트워크 등을 파악하는 지도이므로 전국 국토의 환경적 중요도를 5등급으로 나누는 지도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 지역의 비오톱 현황과 생태적 특성을 조사·평가한 지도'이다.
3번 O: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법제적 평가항목 62개와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8개를 바탕으로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평가하고,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 지도이므로 제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4번 X: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환경·물리·공간적 입지특성을 평가하여 개발과 보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제시문처럼 특정 다수의 환경보전 항목을 중첩하여 국토 전체의 환경가치를 5등급으로 제시하는 지도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62개와 8개의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축된 5등급 지도'이다. 올바르게는 '토지적성평가는 토지 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평가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의 네 용어가 모두 환경계획과 공간정보에 쓰여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법제적 평가항목 62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8개', '환경적 중요도 5등급'이라는 조합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고유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항에 여러 지도 명칭이 함께 나오면 먼저 평가 대상과 작성 방식을 구분한다. 전국 국토의 환경가치를 법제·생태 항목으로 종합하여 5등급화하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이고, 자연환경 자체의 생태적 가치 구분이면 생태자연도이며, 도시 비오톱 조사이면 도시생태현황지도이고, 개발과 보전의 적합성 판단이면 토지적성평가이다.

암기 포인트

62개 법제 항목 + 8개 환경·생태 항목 + 5등급 종합평가 =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이다.

NoteBase

문 6. <보기>의 조경계획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시스템 기술의 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 기술은 기존의 정적 3D 모델과 달리 객체에 정보가 통합된 스마트 모델링이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IoT(Internet of Things)를 이용하여 설계에서 시공, 유지 관리까지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교환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실을 복제한 조경공간에 수목 밀도를 조정하여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적정 수목 밀도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② 메타버스(metaverse)
③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system dynamics modeling)
④ 행위자 기반 모델링(agent-based modelin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실 공간의 데이터를 계속 연결해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다른 가상환경 관련 용어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객체나 공간을 데이터와 연결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디지털 복제 모델이다.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가상공간 서비스 개념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은 피드백과 축적량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행위자 기반 모델링은 개별 행위자의 규칙과 상호작용으로 전체 현상을 모의하는 기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지문은 정적 3D 모델이 아니라 현실 객체의 정보가 통합되고, IoT와 기계학습을 통해 수명주기 전반의 데이터를 교환하며, 현실을 복제한 공간에서 시뮬레이션까지 수행하는 기술을 설명한다. 이는 현실과 가상 복제 모델이 계속 연결되는 디지털 트윈의 설명과 일치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는 이용자 경험과 상호작용 중심의 가상공간 개념이지, 현실 객체의 데이터를 연동해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을 동기화하는 스마트 복제 모델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디지털 트윈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은 인과관계, 피드백, 축적량과 흐름을 중심으로 시스템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지문처럼 현실 공간의 3D 복제 모델에 실시간 데이터가 통합되는 기술 명칭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디지털 트윈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행위자 기반 모델링'이다. 행위자 기반 모델링은 개별 행위자의 행동 규칙과 상호작용으로 군집 현상을 모의하는 기법이다. 지문은 개별 행위자 규칙이 아니라 현실 공간 자체를 복제하고 운영 데이터와 연결하는 기술을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디지털 트윈이다.

오답 포인트

가상현실,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모두 넓게 가상공간 기술로 묶어 보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어는 '정적 3D 모델과 달리', '객체에 정보가 통합', 'IoT와 기계학습',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데이터 교환'이다. 이 조합은 현실 객체와 연결된 디지털 트윈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실 대상의 디지털 복제본이 센서·운영 데이터와 계속 연결되는지부터 본다. 이어서 활용 범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같은 실제 수명주기 전반인지 확인한다. 이 두 조건이 함께 나오면 메타버스나 일반 시뮬레이션 기법보다 디지털 트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디지털 트윈은 현실 객체와 데이터를 연결한 살아 있는 복제 모델이고, 메타버스는 가상공간 서비스이며,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행위자 기반 모델링은 분석·시뮬레이션 기법이다.

NoteBase

문 7. 「조경설계기준(2016)」상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를 할 때 빗물침투설계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① 저지대의 침수지역

② 점토질이 많은 불투수성 포장지역

③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

④ 계획홍수위보다 계획고가 높은 지역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2016)」에서 빗물침투설계를 우선 적용하는 지역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빗물침투설계는 빗물이 지표 아래로 스며들도록 유도하여 유출을 줄이고 물순환을 회복하는 설계이다.

핵심 구분

기준은 투수성이 양호하고 지하수위가 낮으며 오염 우려가 없고 계획홍수위보다 계획고가 높은 곳에 빗물침투시설을 먼저 고려한다. 반대로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불량지역, 붕괴위험지역, 토양오염 예상지역에는 빗물침투설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X: 저지대의 침수지역은 기준에서 빗물침투설계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물이 고이기 쉬워 침투보다 침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틀린 표현은 '저지대의 침수지역'이다. 올바르게는 침수 우려가 없고 배수가 양호한 지역이어야 한다.

2번 X: 점토질이 많고 불투수성 포장인 지역은 투수성이 낮아 빗물이 스며들기 어렵다. 기준은 투수성이 양호한 토양, 예를 들어 투수계수가 $10^{-4} cm/sec$ 이상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틀린 표현은 '점토질이 많은 불투수성 포장지역'이다. 올바르게는 투수성이 좋은 토양과 투수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다.

3번 X: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은 침투 여유가 작아 침투효과가 떨어지고 지반이나 식재기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기준은 지하수위가 낮은 곳에 먼저 적용한다. 틀린 표현은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이다. 올바르게는 지하수위가 낮은 지역이다.

4번 O: 계획홍수위보다 계획고가 높은 지역은 기준에서 빗물침투시설을 먼저 고려하는 지역으로 직접 제시된다. 침수 역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침투시설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입지이므로 가장 적합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빗물침투설계는 물이 많이 고이는 곳에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단순하게 외우면 1번과 3번에 끌리기 쉽다. 이 기준은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빗물이 스며들어도 안전한 곳을 고르는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빗물침투설계 문제는 먼저 '스며들어도 안전한가'를 판단한다. 투수성, 지하수위, 침수위험, 오염우려를 순서대로 보면 투수성 양호, 지하수위 낮음, 침수위험 낮음, 오염우려 없음은 적용 쪽이고 그 반대는 제외 쪽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빗물침투는 높은 곳, 잘 스미는 곳, 지하수위 낮은 곳, 오염 없는 곳에 적용한다.

NoteBase

문 8. <보기>의 조건을 지닌 유원지의 동시체재 이용객 수는?

<보기>

- 연간 이용객 수는 500,000명이다.
- 개장 시간은 6시간이며 평균 이용 시간은 3시간이다.
- 최대일률은 0.01이며, 서비스율은 60%이다.
- 동시체재율은 아래 표와 같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동시체재율	0.25	0.2	0.5	0.56	0.67	0.70	0.77	0.83

① 1,500명

② 2,100명

③ 3,000명

④ 5,000명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간 이용객 수를 최대일 이용객 수로 환산한 뒤 서비스율과 동시체재율을 차례로 적용하여 동시체재 이용객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연간 이용객 수 500,000명, 최대일률 0.01, 서비스율 60%, 평균 이용시간 3시간, 3시간에 해당하는 동시체재율 0.5이다.
구해야 할 값: 유원지의 동시체재 이용객 수이다.
주의할 조건: 표에서는 개장시간 6시간이 아니라 평균 이용시간 3시간에 대응하는 동시체재율 0.5를 선택해야 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동시체재 이용객 수 = 연간 이용객 수 × 최대일률 × 서비스율 × 동시체재율이다.

500,000 × 0.01 × 0.60 × 0.50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연간 총이용객을 최대일 이용객으로 바꾼 뒤 실제 서비스 대상 비율과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머무는 비율을 순서대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연간 이용객 수에 최대일률을 곱해 최대일 이용객 수를 구한다. 500,000 × 0.01 = 5,000명이다.
2. 최대일 이용객 수에 서비스율을 곱해 실제 서비스 대상 이용객 수를 구한다. 5,000 × 0.60 = 3,000명이다.
3. 평균 이용시간 3시간에 해당하는 동시체재율 0.5를 곱한다. 3,000 × 0.50 = 1,500명이다.
4. 계산 결과 동시체재 이용객 수는 1,500명이다.

선지 판단

① O: 최대일 이용객 5,000명에 서비스율 60%와 평균 이용시간 3시간의 동시체재율 0.5를 곱하면 1,500명이므로 맞는 값이다.
② X: 2,100명은 3시간이 아니라 6시간에 해당하는 동시체재율 0.70을 잘못 적용하면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수치 2,100명이며, 올바르게는 평균 이용시간 3시간에 맞는 0.5를 적용한 1,500명이다.
③ X: 3,000명은 최대일 이용객 5,000명에 서비스율 60%만 곱하고 동시체재율을 빠뜨린 값이다. 틀린 표현은 수치 3,000명이며, 올바르게는 여기에 동시체재율 0.5를 추가 적용한 1,500명이다.
④ X: 5,000명은 최대일률만 반영한 최대일 이용객 수일 뿐 동시체재 이용객 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수치 5,000명이며, 올바르게는 서비스율과 동시체재율까지 반영한 1,500명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개장시간 6시간을 보고 표에서 6시간의 동시체재율 0.70을 고르는 것이다. 이 표는 평균 이용시간에 대응하는 동시체재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3시간의 0.5를 써야 한다. 또 서비스율까지만 곱하고 동시체재율을 빼먹으면 3,000명이 되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용객 수 산정 문제는 연간 이용객 → 최대일 이용객 → 서비스 대상 이용객 → 동시체재 이용객의 순서로 단계별 환산을 한다. 표가 있으면 무엇에 대응하는 비율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 문제에서는 평균 이용시간에 맞는 동시체재율을 고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동시체재 이용객 수는 연간 이용객 수에 최대일률, 서비스율, 평균 이용시간에 대응하는 동시체재율을 차례로 곱해 구한다.

NoteBase

문 9. 야생동물 서식처 계획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녹지패치는 요철 반복형으로 배치하여 바람직한 횡적 이동을 유도한다.

② 녹지패치의 모양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조성하여 내부종의 서식기회를 넓힌다.

③ 녹지패치의 주연부는 직선형으로 계획하여 외부종의 간섭을 막는다.

④ 녹지패치는 단층단식이나 단령식재를 하여 서식처의 군립성을 높인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야생동물 서식처 계획에서 패치의 배치 형태, 패치 형상, 주연부 처리, 식재 구조가 이동성과 내부종 보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녹지패치는 야생동물이 먹이활동·은신·이동에 이용하는 서식 공간 단위이다. 내부종은 주연부보다 패치 내부의 안정된 환경을 선호하므로 코어 면적이 큰 응집형 패치에 유리하다. 주연부는 외부 환경과 맞닿는 가장자리로, 길어질수록 간섭과 경계효과가 커진다. 식재 구조는 다층·혼효·다령일수록 구조적 다양성이 커져 서식 기능이 높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요철 반복형 배치는 패치 사이의 접점과 연결 가능성을 높여 동물의 이동 동선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횡적 이동을 유도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② X: 틀린 부분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내부종의 서식기회는 가장자리보다 내부 코어 면적이 넓을수록 커지므로, 실제로는 원형이나 정방형에 가까운 응집형 패치가 더 유리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주연부는 직선형으로 계획하여 외부종의 간섭을 막는다"이다. 외부 간섭 저감의 핵심은 직선형 자체가 아니라 주연부 영향을 줄이는 코어 확보와 완충 식생 조성에 있으므로, 실제로는 가장자리 효과를 줄이는 응집형 계획과 완충대 확보가 필요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단층단식이나 단령식재"이다. 야생동물 서식처는 층위와 연령이 다양한 식생일수록 은신처, 먹이원, 번식공간이 늘어나므로, 실제로는 다층·혼효·다령 구조의 식재가 유리하다.

오답 포인트

②의 "직사각형", ③의 "직선형", ④의 "단층단식·단령식재"처럼 관리가 쉬워 보이는 형태를 생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서식처 계획에서는 내부 코어 면적 확보, 경계효과 저감, 구조적 다양성 확보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야생동물 서식처 문제에서는 먼저 내부종 보호인지 이동 유도인지 판단한다. 내부종 보호가 핵심이면 둥글고 응집된 패치, 짧은 주연부, 완충대, 다층 식재가 맞고, 이동 유도가 핵심이면 패치 간 연결성과 이동 경로 형성이 맞는 방향인지 본다.

암기 포인트

내부종은 코어 면적이 큰 응집형 패치에 유리하고, 좋은 서식처 구조는 다층·혼효·다령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0. 자연하천 내 갈대류 식재계획이 가장 용이한 구역은?

① 수생역

② 추수역(정수역)

③ 연수목구역

④ 경수목구역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하천 식재구역을 수위와 토양수분 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갈대류에 가장 적합한 구역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생역은 상시 물에 잠기는 구역으로 침수식물이나 부엽식물에 맞는 공간이다. 추수역(정수역)은 얕은 물이나 늘 젖은 토양의 수변대로 갈대·부들과 같은 정수식물이 잘 자라는 구역이다. 연수목구역은 습윤한 둔치의 수목대이고, 경수목구역은 그보다 높고 건조한 상부 수목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수생역은 물속에 계속 잠기는 공간이어서 갈대류보다 침수식물이나 부엽식물의 식재에 맞다. 틀린 표현은 '갈대류 식재계획이 가장 용이'이다. 올바르게는 수생역은 수중 적응성이 큰 수생식물 식재에 더 적합하다.
2번 O: 추수역(정수역)은 수심이 얕고 토양이 항상 젖어 있어 갈대류 같은 정수식물의 활착과 군락 형성이 가장 쉽다. 갈대류 식재계획이 가장 용이한 구역이므로 정답이다.
3번 X: 연수목구역은 습윤한 하안부의 수목 식재 구역이어서 갈대류보다 버드나무류 같은 내수성 수목에 맞는다. 틀린 표현은 '갈대류 식재계획이 가장 용이'이다. 올바르게는 연수목구역은 습한 입지의 수목 식재에 적합하다.
4번 X: 경수목구역은 범람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더 건조한 상부 구역이어서 갈대류보다 건생 또는 중생의 활엽수 식재에 맞는다. 틀린 표현은 '갈대류 식재계획이 가장 용이'이다. 올바르게는 경수목구역은 비교적 건조한 수목 식재 구역이다.

오답 포인트

갈대를 단순히 '물가식물'로만 기억하면 수생역과 추수역을 같은 구역처럼 보게 된다. 이 문항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지, 얕은 물과 젖은 토양에서 자라는 정수식물대인지의 차이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하천 식재구역 문제는 먼저 침수 깊이와 지속시간을 본다. 상시 잠기면 수생역, 얕은 물과 젖은 토양이면 추수역, 그 위의 수목 식재대이면 연수목구역과 경수목구역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갈대는 얕은 물과 젖은 토양의 정수식물이며 기본 식재대는 추수역이다.

NoteBase

문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②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③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④ 공공 · 문화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연구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기반시설 분류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기반시설은 도로·공원·하수도처럼 국토의 이용과 개발을 위해 법령이 유형별로 정한 공공적 시설을 말한다.

핵심 구분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이 들어간다. 방재시설에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가 들어간다. 주차장은 교통시설이고,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이 포함되므로 올바른 짝이다.
2번: X. 틀린 표현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방재시설에 넣은 부분이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등"이다.
3번: X. 틀린 표현은 "주차장"을 공간시설에 넣은 부분이다. 주차장은 교통시설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이다.
4번: X. 틀린 표현은 "종합의료시설"을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넣은 부분이다.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고 종합의료시설은 별도로 보건위생시설이다.

오답 포인트

환경기초시설과 방재시설을 함께 외우다가 2번의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 흔들리기 쉽다. 또한 주차장을 공간시설로, 종합의료시설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착각하면 분류 문제에서 바로 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반시설 분류 문제는 낯선 시설 하나를 먼저 표시해 소속을 확인하면 빠르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라는 기준으로 선지를 소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빗물저장은 환경, 주차장은 교통, 종합의료는 보건위생으로 묶인다.

NoteBase

문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녹화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전체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이다.

④ 도시녹화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범위, 심의 절차, 상위계획과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상위 기본계획이다.
도시녹화계획은 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구체적 녹화계획이다.

핵심 구분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고 도시녹화계획은 그에 따라 수립되는 하위계획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지역 전체의 방향을 10년 단위로 제시하지만,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시공원위원회가 없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도시녹화계획은 관할 도시지역 전체가 아니라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틀린 표현: "도시지역 전체에 대하여"
올바른 표현: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② O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선지의 취지는 이 대체 심의 구조를 말한 것이므로 옳다.

③ X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녹화계획이 아니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이다.
틀린 표현: "10년을 단위로 하여 …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올바른 표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10년 단위의 상위 기본계획이고, 도시녹화계획은 그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

④ X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 도시녹화계획이 그 하위계획이다. 선지는 상하 관계를 거꾸로 적었다.
틀린 표현: "도시녹화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다"
올바른 표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녹화계획이 있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문구인 "도시지역 전체"와 "10년 단위"를 도시녹화계획에 그대로 옮겨 붙인 함정이다. ④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관계를 뒤집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획 이름에 "기본"이 들어가면 먼저 상위계획인지, 적용 범위가 도시지역 전체인지, 기간이 10년 단위인지 확인한다. 도시녹화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와 "도시지역의 일부"라는 문구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은 10년·전체, 녹화는 일부·구체,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 우선이다.

NoteBase

문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고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례 및 별도의 조항이 없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복합토지

②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③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④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상 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의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면적과 단일토지 여부, 녹지활용 효과가 높은 토지인지 여부, 사용·수익권 설정 여부를 나누어 보는 데 있다.

용어 풀이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녹지로 제공하는 대신 행정청이 그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계약이다. 단일토지는 여러 필지가 뒤섞인 복합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토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는 조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이다. 다만 조례로 지역 여건에 맞게 3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서 임상이 양호하거나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등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여야 하고,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시행령의 원칙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이다. 선지의 핵심 오기는 '복합토지'이다. 틀린 표현은 '복합토지'이고, 올바르게는 '조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이다.
② O: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는 시행령이 직접 예시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취지와도 맞는다.
③ O: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대상 요건에 그대로 들어간다. 이미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토지는 일반 도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기준이다.
④ O: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역시 시행령이 예정한 대상이다. 훼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을 통해 보전·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토지로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단일토지와 복합토지를 혼동했거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는 당연히 제외된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행령은 보존 필요성이 높고 훼손 우려가 큰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효과가 큰 토지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에서 '대상이 되는 토지'를 묻는 문제는 먼저 물리적 요건인 면적과 단일토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입지와 상태가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인지 본다. 마지막으로 사용·수익권 같은 권리부담이 없는지 확인하면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단일토지이고, 녹지효과가 높으며, 사용·수익권이 없어야 한다.

NoteBase

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의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 및 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②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③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④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법정 범위를 다른 용도지역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핵심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이고, 제85조에 따르면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이다.
근린상업지역은 건폐율 70퍼센트 이하·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이고,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이므로 상업지역 내부의 단계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는 중심상업지역 기준이 아니다. 주거지역 계열 수치와 혼합된 값이다. 틀린 표현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이다. 올바른 표현은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이다.
2번: X.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는 근린상업지역 기준이다. 중심상업지역보다 한 단계 낮은 상업지역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틀린 표현은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이다. 올바른 표현은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이다.
3번: X.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는 일반상업지역 기준이다. 중심상업지역 수치보다 각각 한 단계 작다. 틀린 표현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이다. 올바른 표현은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이다.
4번: O.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이므로 시행령 기준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근린상업지역 70·900, 일반상업지역 80·1300, 중심상업지역 90·1500을 같은 상업지역으로 뭉뚱그리면 틀린다. 2번과 3번은 실제 다른 상업지역 기준이라 숫자가 익숙해 보여도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업지역 문제는 먼저 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의 순서를 떠올린 뒤 건폐율 70-80-90, 용적률 상한 900-1300-1500을 대응시키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상업지역은 근린 70·900, 일반 80·1300, 중심 90·1500 순서이다.

NoteBase

문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공원 중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은 주제공원에 속한다.

② 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 공원면적의 4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광역권 근린공원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의 범위가 가장 큰 도시공원은 체육공원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의 세분과 공원별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 근린공원의 규모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생활권공원은 일상생활권에서 이용하는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여기에 속한다.
주제공원은 특정 목적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핵심 구분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은 생활권공원이고 체육공원은 주제공원이다.
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공원면적의 40% 이하이고, 체육공원은 50% 이하이며,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은 제한이 없다.
광역권근린공원의 규모 기준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은 모두 생활권공원에 속한다.
틀린 표현: "주제공원에 속한다"
올바른 표현: "생활권공원에 속한다"

2번 O: 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공원면적의 40%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3번 X: 광역권근린공원은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 이용을 위한 근린공원이며 규모 기준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다.
틀린 표현: "최소 300만제곱미터 이상"
올바른 표현: "최소 100만제곱미터 이상"

4번 X: 체육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은 50% 이하이므로 가장 큰 범위가 아니다. 어린이공원은 60% 이하이고,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은 아예 제한이 없다.
틀린 표현: "범위가 가장 큰 도시공원은 체육공원이다"
올바른 표현: "체육공원의 비율은 50% 이하이며,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은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 제한이 없다"

오답 포인트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분류를 뒤섞거나, 40%·50%·60% 같은 수치를 비슷한 값으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 또한 광역권근린공원의 최소 규모를 100만제곱미터가 아니라 300만제곱미터로 과장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원 종류가 생활권공원인지 주제공원인지 분류하고, 다음으로 해당 공원의 최소 규모와 공원시설 부지면적 상한을 따로 대조하면 된다. 분류와 수치를 한 번에 외우지 말고 유형과 기준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암기 포인트

생활권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이다. 근린공원 40%, 체육공원 50%, 어린이공원 60%, 광역권근린공원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6. 조경진흥법령상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경진흥단지에는 일반적으로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되거나 조성된 조경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지원센터, 조경과 관련된 공공기관, 조경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조경진흥시설과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이고, 조경진흥단지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이다.

핵심 구분

조경진흥시설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조경진흥단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조경 관련 공공기관·조경 관련 비영리법인 중 하나가 해당 지역에 있으며, 교통·상하수도·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①은 조경진흥단지의 기본 요건을 옳게 설명한 선지이다.
② O. 지정되거나 조성된 조경진흥단지에 대해서는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지원 내용은 법령 취지에 맞다.
③ X.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은 조경진흥단지가 아니라 조경진흥시설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이고, 올바른 표현은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이다.
④ O. 조경진흥단지에는 조경지원센터, 조경 관련 공공기관, 조경 관련 비영리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④도 지정 요건을 옳게 서술한 선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모두 조경 활성화 거점으로만 외우면 건축물과 지역을 뒤바꾸기 쉽다. ③은 건축물이라는 문구를 넣어 조경진흥시설의 정의를 조경진흥단지에 바꿔 끼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건축물, 입주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경진흥시설을 먼저 떠올리고, 해당 지역, 상주, 기반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시설은 건축물, 단지는 지역이다. 단지는 10개 업체 상주, 관련 기관 존재, 기반시설 구비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7.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상 식재수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허가권자가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①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은 상록수로 식재하여야 한다.

②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5퍼센트 이상은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메타세쿼이아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식재한 식물을 건물 외벽에서 최소 7m 이상 이격하여 식재한다.

④ 건축물 구조체 등으로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목의 성장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맥문동이나 수호초 등을 식재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 제8조의 식재수종 기준, 즉 상록수 식재비율, 지역 특성수종 식재비율, 음지 식재, 뿌리 피해 예방 조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상록수 식재비율은 교목 및 관목의 규정 수량 중 상록수가 차지해야 하는 최소 비율이다.
지역 특성수종 식재비율은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이 차지해야 하는 최소 비율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상록수는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지역 특성수종은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율대로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음지 지역은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그늘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며, 뿌리 피해 우려 수목은 방근 조치가 어렵다면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 최소 5m 이상 이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상록수 식재비율은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이다. 10퍼센트가 아니다.
틀린 표현: "규정 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은 상록수"
올바른 표현: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은 상록수"이다.
② X: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은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이다. 5퍼센트가 아니다.
틀린 표현: "교목의 5퍼센트 이상"
올바른 표현: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이다.
③ X: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처럼 뿌리 생육이 왕성한 수목은 방근 조치가 어렵다면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한다. 7m가 아니다.
틀린 표현: "최소 7m 이상 이격"
올바른 표현: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이격"이다.
④ O: 건축물 구조체 등으로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향후 일조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그늘에 강한 지피류인 맥문동·수호초 등을 선정하여 식재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제8조는 20퍼센트, 10퍼센트, 5m처럼 수치가 비슷하게 이어져 숫자를 바꿔 넣기 쉽다. ①은 상록수 비율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줄였고, ②는 특성수종 비율 10퍼센트를 5퍼센트로 바꾸었으며, ③은 이격거리 5m를 7m로 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재수종 문제는 먼저 비율 규정을 확인한다. 상록수는 20퍼센트, 특성수종 교목은 10퍼센트로 잡고, 음지 지역은 양수·잔디 금지와 맥문동·수호초 같은 음지성 지피류를 연결한다. 뿌리 피해 우려 수목은 방근 조치 또는 5m 이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록수 20, 특성수종 교목 10, 뿌리 피해 우려 수목은 방근 또는 5m 이격, 음지는 맥문동·수호초이다.

NoteBase

문 18. 「자연공원법」상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옳게 짝지은 것이 아닌 것은?

① 가야산 국립공원 - 지리산 국립공원

② 경주 국립공원 - 월악산 국립공원

③ 태안해안 국립공원 - 청량산 국립공원

④ 무등산 국립공원 - 팔공산 국립공원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공원과 국립공원이 아닌 공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국립공원은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자연공원이다. 도립공원은 시·도가 지정·관리하는 자연공원이다.

핵심 구분

판단 기준은 각 공원의 공식 공원 등급이다. 가야산, 지리산, 경주, 월악산, 태안해안, 무등산, 팔공산은 국립공원이고, 청량산은 국립공원이 아니라 경상북도 도립공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가야산과 지리산은 모두 국립공원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을 옳게 짝지은 것이다.
2번: O. 경주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은 모두 실제 국립공원 명칭이다. 따라서 올바른 짝이다.
3번: X. 태안해안은 국립공원이지만 청량산은 국립공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청량산 국립공원'이다. 올바르게는 '청량산 도립공원'이다.
4번: O. 무등산과 팔공산은 모두 국립공원이다. 특히 팔공산은 2023년 12월 제23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공원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청량산처럼 유명한 산 이름은 국립공원으로 착각하기 쉽다. 반대로 팔공산은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예전의 도립공원 기억을 그대로 적용하면 4번을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 이름을 묻는 문제는 경관 특징보다 먼저 공식 공원 등급을 확인하면 된다. 보기 안에 낯익은 산 이름이 있어도 국립공원인지 도립공원인지까지 구분해야 정답이 갈린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청량산은 도립공원, 팔공산은 국립공원이라는 대비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 정원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정원
② 지방정원
③ 민간정원
④ 생활정원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정원 유형별 최소 녹지면적 기준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녹지면적은 정원 전체 면적 중 식재와 녹지로 확보된 면적을 뜻한다. 이 시행령에서는 국가정원에 대해 원형보전지와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의 면적으로 설명한다.

핵심 구분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의 시설기준상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은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생활정원만 녹지면적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국가정원은 정원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면 된다.
틀린 표현: "60퍼센트 이상"
올바른 표현: 국가정원은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번 X: 지방정원도 정원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 기준이다.
틀린 표현: "지방정원이 60퍼센트 이상"
올바른 표현: 지방정원은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번 X: 민간정원 역시 정원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면 된다.
틀린 표현: "민간정원이 60퍼센트 이상"
올바른 표현: 민간정원은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번 O: 생활정원은 일반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 또는 건축물의 유휴공간에 설치하고, 정원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모두 큰 정원으로 묶어 더 높은 비율이 필요하다고 오해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생활정원만 60퍼센트라는 예외적 수치를 기억하는지를 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 유형 문제는 주체를 먼저 나누고, 숫자 기준은 40퍼센트 묶음과 60퍼센트 예외를 구분하면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 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은 40퍼센트, 생활정원은 60퍼센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녹지면적 기준은 국지민 40, 생활 60이다.

NoteBase

문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산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대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입목 · 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②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 대나무와 그 토지

③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에 있는 입목 · 대나무와 그 토지

④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 정의에서 본문 각 목의 포함 대상과 단서의 제외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일시적으로 입목·대나무가 없어지게 된 토지,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제2조 제1호 각 목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산림에 포함된다. 다만 단서에 따라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는 산림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는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산림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은 '제외하는 대상'이다. 올바르게는 '산림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② X: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산림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은 '제외하는 대상'이다. 올바르게는 '산림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③ O: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에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직접 제외한다. 본문의 포함 규정이 아니라 단서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④ X: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는 제2조 제1호 라목의 임도이므로 산림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은 '제외하는 대상'이다. 올바르게는 '산림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오답 포인트

'도로'라는 단어만 보고 ④를 제외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단서의 '도로에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와 본문의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 정의 문제는 먼저 단서의 제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각 목이 포함 규정인지 제외 규정인지 나누어 판단한다. 특히 같은 단어가 나오더라도 단서의 일반 도로와 본문의 임도를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가·나·다·라·마는 산림 포함, 단서의 농지·초지·주택지·도로 위 입목·대나무는 산림 제외이다.

NoteBase